

이스라엘-하마스 전쟁: 우리에게 미칠 안보 · 경제적 영향

2023년 10월 10일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



이스라엘-하마스 전쟁: 우리에게 미칠 안보 · 경제적 영향

2023. 10. 10 (화), 김창배 경제센터 실장, 이윤식 외교안보센터 실장

□ 현황

○ 현재까지 현황

- 10.7(현지),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대한 기습공격
 - 소나기 포격(미사일 5,000발 동시다발 발사) 및 글라이더로 레이더 회피 무장침투원 투입 등
- 10.7~9,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800개 지점 폭격 및 공습(*전면적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)
- 10.9, 만일의 상황에 대비 美 '수퍼 항공모함' 제럴드포드함과 항모 전단 이동 배치
- 현재(10.9 현지)까지 양측 사상자수는 사망자 1,487명, 부상자 6천여명 이상
 - ※ 이스라엘(800여명 사망, 2,600여명 부상, 150명 납치), 팔레스타인(687명 사망, 3,726명 부상, 12만명 이상 피난길)

○ 전쟁의 원인(추정)

- 미중간 중재로 사우디(수니파)와 이스라엘 간 관계회복이 급진전, 만약 양국 관계가 회복되어 중동 화해 무드가 연출된다면, 이슬람 소수파인 이란(시아파)의 중동 내 입지에 타격이 발생. 이에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하마스를 이용했을 가능성
 - * 현재 이란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며 공식 선언한 상황
-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책: △첨단기술에 의존하다 '휴민트'에 구멍이 발생, △모사드(해외정보기관)와 신베트(국내 첩보기관), 군경찰 사이의 국내 정치적 분열로 정보의 벽이 생김, △동맹국인 이집트의 첩보를 무시하고 분쟁 장기화로 인한 안이함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

□ 안보적 여파 (※ 대북 정찰·대공 방어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)

○ 문제의식: 하마스보다 더 위협적인 北의 로켓 및 게릴라전 능력에 대비해야 함

- 현재 수도권 직접 겨냥 北의 장사정포(총 240문): 170mm 자주포 140문(사거리 54km), 240mm 방사포 200문(사거리 65~70km) => 1시간에 1만6000발 발사 가능
- 막강한 비정규전 병력인 특수작전군 20만명: 하마스와 같은 글라이더로 레이더 회피, 땅굴·잠수함, 공기부양정, 고속상륙정, 헬기 등으로 전후방 지역 침투 가능

○ 그러나 북한에 날개를 달아 준 비대칭 합의인 <9.19군사합의>에 따른 지상, 해상, 공중 안보공백은 "매우 심각". 따라서 전면 재검토 필수

- 지상: △MDL 남북 5km 포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지, △DMZ의 GP 단계적 철수(11곳씩 시범 철수), 그러나 GP 숫자가 한국 60곳, 북한 160곳으로 동수 철수는 우리에게만 불리

=> 문제점: △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제약, △GP 숫자가 韓 60곳, 北 160곳으로 동수

철수시 우리군 전력 손실이 더 큼

- 해상: △포사격 및 해상기동 훈련 중지, △해안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을 폐쇄하는 완충수역 설정(北은 갯도에 숨기기 때문에, 직접영향이 없음)
=> 문제점: △백령도 등 서해 5도 안보 불안 고조(김정은이 점령하고 싶은 곳 1위는 서해도서), △수도권 왼쪽 측면, 즉 한강하구 지역 안보 공백 발생
- 공중(정찰, 전투기 훈련 등 비행금지구역 설정): △고정의 항공기: 동·서부 40km·20km, △무인기: 동·서부 15km·10km 등으로 설정
=> 문제점: △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정찰 자산 발을 묶어, △군사분계선 근처 북 장사정포 도발 징후 사전 포착 능력 약화 및 제한

□ 경제적 여파

- 이번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칠 2가지 경로
 - 첫째, 유가 상승 → 인플레이 재상승 → 한은 긴축기조 강화 → 소비 투자 위축
 - 둘째,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교역 위축 → 수출 감소 → 무역수지 악화 → 환율 불안
- 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지속적 유가 상승의 가능성은 낮고 이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·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
 - 첫째,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국이 아님. 이들의 무력충돌이 원유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
 - 둘째, 중동국가들이 참전하면서 확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
 - △헤즈볼라가 참전하겠지만 단지 무장단체일 뿐, △주변 중동국가들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것. 시리아는 자체 내전, 이집트 등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움, △더구나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도 자신이 배후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
- 다만 이란이 참여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
 -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하면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큰 충격 불가피
-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

□ '부산 엑스포'에 미치는 영향

-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지형이 될 수 있다고 판단
 - 첫째, 이번 사태로 중동지역에 대한 전쟁 위험성이 부각된다는 점
 - 둘째, 사우디의 포지션이 난감해질 수 있다는 점
 - △이스라엘 편을 들면 이슬람의 배반자로 찍히고 그렇다고 하마스 편을 들면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, △자칫 지금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들인 사우디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